

43일간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부처님의 전법원력을 되새기는 정진의 장이기도 했다.

순교 각오로 '전법포교'에 임하자

상월결사 108원력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08원력문이 새로 발표됐다. 올해 3월 14일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기간 중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의 일이다.

108원력문은 새롭다. 부처님 탄생게가 그렇듯이 생각의 새로움과 실천의 새로움이 함께한다. 기존의 108 기도문보다 쉽고 체계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삼법인, 사성제, 사섭법, 육바라밀, 팔정도, 십선계, 전법, 화엄, 자비, 무차평등, 실천불교, 상월결사 정신 등 불교의 핵심 메시지와 현안 과제들로 짜여 있다. 참회는 그만한다, 성불도 다음 생으로 미룬다, 금생에 중요한 것은 오직 전법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 바탕이다.

새로운 108원력문은 전법의 생활화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에서 무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41.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59.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88.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101.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국어다.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배려토록 한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사회를 이루며 같이 산다. 개인의 깨달음은 불교의 귀착점이 아니다. 함께 깨닫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이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신 후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다.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 일주일 이상을 걸어서 다섯 수행자를 향해 진리를 설하셨다. 진리를 설하는 행위를 전법이라 하고, 진리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단이라고 부르니 불교의 탄생은 교단 탄생과 직결된다. 두 번 말해 무엇하랴. 교단의 존재 이유는 전법 말고는 없다.

수행자가 깨달음에 몰두하다가 이웃에 소홀해지면 모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제1과제는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지금은 성불할 때가 아니라 전법할 때라는 게 상월결사의 정신이다.

"상월결사, 우리의 안일함 인정하고 '쇄신하자'는 메시지 내부에 던졌다 이젠 지혜를 모아 실천방안 찾을 때 원력문 독송 콘텐츠 제작 보급 필요 108배하며 원력문 독송하면 더 좋아 원력문 공동 체험 통한 신불교운동을"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제1과제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아쉬움이 작지 않다. 상월결사는 우리의 안일한 관행을 인정하고 이를 쇄신하자는 메시지를 불교계 내부에 던졌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지혜를 모아 좋은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08원력문은 '마음먹기(生心)'의 형식을 취한다. 내가 바라는 것, 우리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을 위주로 구성했다. 열심히 독송하면 스스로 마음을 낼 수 있는 자기 확인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내적 자발성을 유도하는 언어 반복 훈련이 구체적 실천의 중요한 포인트다. 매일 특정 시간에 독송하는 게 관건이다. 108배를 하면서 독송하면 더 좋다. 음성 좋은 스님의 오디오 독송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보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합송 체험도 권장한다. 도반들이 모여 같은 마음 같은 속도로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때와 또 다르다. 공동체 유대감이 한층 강화된다. 다 읽고 나면 경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를테면 내가 확실하게 실천한 원력문에 대한 자기 점검이다. 경험에 대한 느낌, 생각, 새로운 깨달음 등에 대해 도반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각 사찰에서, 단위 학교와 포교당이며 다양한 불자 모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종의 신불교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볼 만하다. 자기 혼자 할 때는 내적 자발성이 지켜져야 하고, 함께할 때는 공동체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

108원력문은 하나하나가 공덕을 쌓는 일이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실천하면 선근공덕이 저절로 증장한다. 마지막 원력문은 비장하고 결연하다.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온 삶을 바친다는 말은 종교적 순교의 개념이다. 우리 불교는 신라의 이차돈 이래 부처님 법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없다. 절박하지 않았다. 이제는 한가할 시간이 없다. 순교를 불사할 정도의 전법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윤재웅 / 동국대 총장

상월결사 108원력문

〈A14면에 이어〉

55. 부처님의 자유와 평화를 모두가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56. 국민과 사회에 바르고 온화하게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7.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8.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9.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60. 계층과 신분을 분별하지 않고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1.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2.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3.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4.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65. 모든 일에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66.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7.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8.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지 않겠습니다.
69. 동물과 미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70.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71.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72.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73.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74.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5. 더욱 화합하고 성숙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76. 불자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77. 불자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8. 자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79. 청소년들이 훌륭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0. 청년 대학생들이 활기차고 자유롭도록 돕겠습니다.
81. 중장년층이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2.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3. 불자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84. 모든 사람에게 언행이 일치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85.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수지하고 독송하며 기억하겠습니다.
86. 굳건한 정진과 보시의 공덕을 널리 회향하겠습니다.
87.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88.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89.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90. 가난을 멸시하거나 부자를 질시하지 않겠습니다.
91. 겉모습과 권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92. 잇속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겠습니다.
93.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94. 모두를 공평하게 보듬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95. 세상 속 불교를 실천하여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96. 각자의 수행이 한국불교의 자긍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97.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겠습니다.
98.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99. 유익한 신행문화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100. 회향의 공덕을 나누어 움직이는 불교를 이루겠습니다.
101.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102. 불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현시대에 실천하겠습니다.
103. 사부대중은 국민의 삶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104. 사부대중은 인간의 삶에서 생로병사를 함께하겠습니다.
105.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6. 사부대중의 정진을 모아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7. 불법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며 보답하겠습니다.
108. 부처님 법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